

사람중심에 놓아야 할 세계

강연초록—자연이란 무엇인가

□ 세계와 사람

세계를 논할 때는 사람과 관련 지어 말해야 한다. 그것은 사람보다 먼저 객관적으로 존재해 온 세계일지라도 사람이 없다면 그 의미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 자연과 사람의 특징

자연현상은 물질들의 각이한 운동에서 비롯된다. 천체적인 자연 현상인 달의 위상은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다. 보이는 것이 판본론이 아니라, 과학적 세계관은 자연변화를 그 내적원인에 의해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본다. 즉, 구조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화발전하는 변증법의 관점이다.

자연의 변화과정은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무생물에서 생명에 있는 유기체로, 유기체에서 가장 발전한 형태인 사람으로 변화·발전한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은 자연이 변화·발전하는 가운데 생성된 자연의 산물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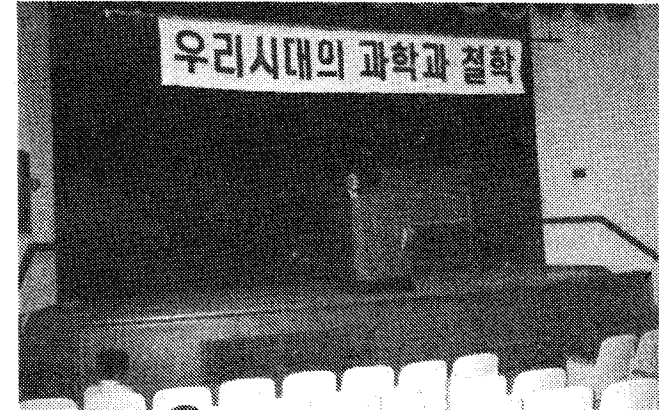
선천적으로 사람은 자연적존재·물질적존재이다. 이것이 사람의 의미를 잃게 하는 일차적 요소인 틀림없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적존재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존재로 발전한다. 사회는 법칙과 달리 사람에게 의해 발전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이성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한 자연이 기 때문이다. 또한 신도 유일하게 고귀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 지구의 역사

19C의 박물학자이자 영국귀족인 케플은 "지구는 원래 융해상태의 용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

며 열전도이론을 끌어와 지구의 땅이 굳어진 것에 대해 부연한다. 그는 지구의 기원을 9천8백만년 전에서 2억년의 전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다윈은 깊은 바다에 깔려

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식으로 보면 지구상의 생물은 20억년에서 15억년 전 생성되었다 할 수 있지만 관측성에 의해 동위원소 C₁₂ C₁₃ 탄소의 분포도



우리시대의 과학과 철학

자연의 조화속에서 생명유지 가능 오염, 물질적 존재 사람의미 상실

있는 피복층으로 지구의 기원을 설명한다. 1천년에 1m피복층이 쌓이므로 수천km피복되어 있는 지금에서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억년전이라고 주장한다.

지구물리학이 상당수준 발전된 현대는 방사성 원소 동위원소의 열람에 의해 계산하고 있다. 지구는 완전 융해상태까지 45억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융해상태가 식어져 지각과 맨틀이 형성되어 암석이 되어있는 것이 36억년에서 37억년전이라고 말한다. 지각·맨틀이 생겨 밀도에 의해 원과 니켈의 핵으로 핵이 분화된다.

대기와 해수의 생을 두께는 약 30억년간의 탈개소작용으로 설명한다. 원소조성관계에서 대기가 생겨났다는 말도 있지만

양을 보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탄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5억년전

□ 생명의 발생과 의미

그렇다면 논쟁의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명의 인식과는

나뭇, 18C 증기기관등의 기계가 만들어 질때 모든 사물을 기계와 비교하려는 관습을 생겨났다. 기계론적 견해로 생명을 단순한 기계 역학적 장치로 취급하는 모순이 있다.

본문 자연은 사람과 사회의 생성, 발전의 조건이 되고 있다. 사람은 확실히 물·광·공기를 원천으로 하는 물·광·공기의 조화속에서 생명유지 가능한 물질적·자연적 존재이다. 부단한 신진대사를 하는 인체는 물을 71% 1번씩, 단백질을 80% 1번씩 교체하는 등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1년이 지나면 98%가 갱신된다. 남는 2%는 중금속, 수은 등으로 신체에 묻어 물과 공기를 일으킨다. 그런데 현재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그 조화를 파괴해 자연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 (文責:오은희 記者)

관행이 될 집행유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령준수와 청렴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당시 관행이라고 여겨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점과 3개월에 걸친 구금기간동안 피고인들에게 자성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자정운동이 일었던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동아일보 5월11일자)

위는 얼마전 사회적으로 수서사건과 함께 파문을 일으켰던 '의원불복의유사건'의 판결문 요지이다. 우리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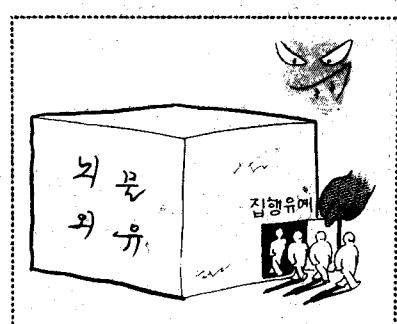
가을 판결문에서 나온 '관행'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의원들이 유관단체의 지원을 받아 위유를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법원은 이런 관행이 법률과 조리에 근거하지 않았다 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관행'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지 여러가지 할 수 있다. 이런 관행이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인지, 아니면 정당성을 잃은 관행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피고인들의 도덕성을 의심해야 될 것인지이다.

두번째로 구금기간동안의 피고인들의 자성여부일 것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큰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자정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담당판사에게 묻고 싶다. 그런데도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들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뼈

아픈 반성이라도 한 것처럼 보여진다. 어불성설도 단수가 높은 어불성설일듯 싶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죄인이 어찌 반성이나 참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묻고 싶다.

세번째로 국회의 자정운동이라는 것이다. 수서사건이후 제정된 '의원윤리강령'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만한, 모든죄관 죄는 모두 면해 주는 중세사회의 '면죄부'인 양 싶다.

단지 자기를 몇몇의 머릿수에서만 나온 그런 강령들이 만병통치약처럼 행사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치밀히 오류를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련을 겪고 이 시대의 살아 있는 양심으로서 우뚝 서야 할 법관나오리들이 이처럼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민초들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할지 망막하기만 하다.

물론 법관나오리들의 잘못만은 아닌것을 알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가진자와 못 가진자, 배운자와 못 배운자의 차이가 현격히 들어오며 이에 따라 사회가 역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니시리즈—교수 '학회'를 점검한다

서반아 문화의 전령사

—'한국 서어문학회'를 찾아서

‘한국 서어문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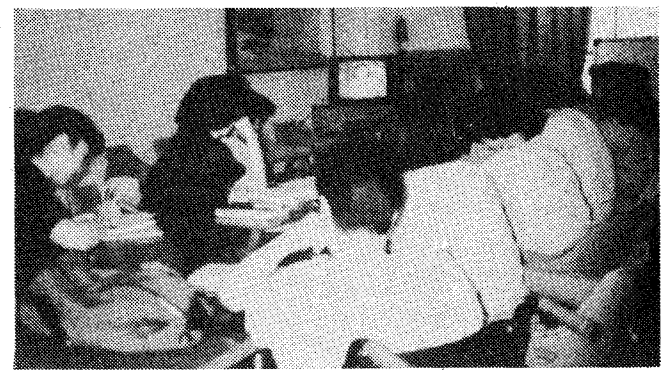
한국 서어문학회 학회는 서반아 문화권의 불모지라 할수 있는 우리나라에 올바른 서반아 문화의 소개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0년대초 창립, 70여명의 회원들의 활동하고 있다.

한국서어문학회는 서반아어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11개 대학의 교수 및 강사가 주축이 되어 서반아어학과, 문학 뿐만 아니라 중남미 및 스페인 지역 학동 광범위한 부분에서 걸쳐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회원들은 지난 85년 우리나라에 주재한 인도등의 회원국이 있는 아세아 서어문학회에 자동적으로 가입돼 4년에 한번씩 학회를 열어 학술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난 85년 제1회 아시아 서어문학회 서울에서 열린 이후 89년 제2회 학술회의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으며, 오는 93년 6월에는 동경에서 제3차 학술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 서어문학회 학회는 어학에 있어서는 언어 구조주의 연구에 힘쓰고 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서반아어 연구도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현재 아시아 서어문학회 회원국 중, 서반아



이교수들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 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

한편 지역학에 관해서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중남미연구소와 서울대학교의 스페인·중남미연구소가 개설되어 있으나 그 연구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한 상

는 아직 서반아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연구조건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일례로 이웃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서반아어가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이 학회의 연구는 공동연구보다는 개별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결과를 가지고 일년에 한번씩 논문발표회를 갖는다. 요즘은 주로 문학부분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남미 소설의 마술적 사실주의와 현실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소산에 대한 연구가 주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것처럼 한국 서어문학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문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의 영역을 넓히지 못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중남미나, 스페인과의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많아, 자료를 거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원 '현재 국수소의 교환생들만이 수업하고 있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 수업의 확대를 시켜 최소한 모든 국립대학에서 서어문학과를 설립되어 한다면 학회원들의 요구가 크다고 한다.

한편으로 요즘들어 한국의 대학에서 독점적으로 배교해오던 서반아어에 비교해 다른 대학에서도 상당수 배교되고 있어 최근까지 문학 분야에만 치우쳐있던 서반아어 연구가 이제 어학 분야에도 활발해져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활성화의 기미가 보여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현재 한국 서어문학회 회장은 김이배(한국외국어대·서반아어과)교수가 맡고 있으며 본교에서 김한상(외대·서반아어과)교수가 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임홍준 記者)

아세아 학술회의 주도적으로 치뤄 인력부족으로 연구영역 축소돼 제2회 아시아 서어문학회 교육·학파정립 시급

페이다 지역학뿐만 아니라, 어문학에 있어서도,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연구발표보다는 서반아어 문학의 번역을 통한 저변 연구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학회에 회원으로 있는 본교 김한상(외대·서반아어과)교수가 "서반아어는 언어학과는 다른 사용언어에 있어 더욱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학술정보

동북아 연구소 2차례 특강

동북아 연구소는 5월13일과 6월1일부터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특강을 실시한다.

1차 특강은 13일 2시30분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데 소련 철학대학 Anatoly P. Derlyankov 교수에 '소련의 철학과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 1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2차 특강은 Gennadiy V. Vassiliev 프라하 지사가 '프라하의 인성, 인성, 고르비체프, 한국전쟁의 문제'의 주제로

서울, 수원, 광릉캠퍼스에서 실시한다.

월간 '발명과 생활' 창간

월간 '발명과 생활'이 발명의 생활화와 발명인의 자존의식을 창간이념으로 창간했다. 이번 5월 창간호에 실려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어디까지 진화한 것인가 △물길의 근원은 우주의 기원과 통한다 △우주의 과학자, 자연발생의 최후는 왔는가 등.

ELS

유학과 TOEFL 준비는...

ELS 종로 집중영어회화코스

1일 6시간 단기집중회화코스 오전 9 - 오후 4시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1일 2시간, 3시간 회화코스

● ELS란?

ELS는 미국 교육성이 교육의 질을 인정하는 "Accredited School"로서, 30년 동안 전세계 50만명의 학생에게 영어교육을 가르쳐온 정통 영어전문 교육기관입니다.

● ELS 교수진

ELS 교수진은 TESOL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전문가들로, 전연 Native Speaker입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 수료증 발급

본교가 발급하는 수료증은 미국 21개 ELS Language Centers에서 통용되며 미국내 약 400개 대학에서 TOEFL 대신으로 인정합니다.

* 1일 7시간 3개월 완성 "3차원 EFL 코스"

(4시간 미국인화 + 3시간 TOEFL)

* TOEFL 고득점을 위한 "TOEFL Advanced Course"도 있습니다.

* 등록금: 파고다점원 1년제 시애틀시애틀 1년제 440만원

(주)시사영어사 직영

ELS Chongno

강북 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278)2902/3

ELS

유학과 TOEFL 준비는...

ELS 종로 집중영어회화코스

1일 6시간 단기집중회화코스 오전 9 - 오후 4시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1일 2시간, 3시간 회화코스

● ELS란?

ELS는 미국 교육성이 교육의 질을 인정하는 "Accredited School"로서, 30년 동안 전세계 50만명의 학생에게 영어교육을 가르쳐온 정통 영어전문 교육기관입니다.

● ELS 교수진

ELS 교수진은 TESOL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전문가들로, 전연 Native Speaker입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 수료증 발급

본교가 발급하는 수료증은 미국 21개 ELS Language Centers에서 통용되며 미국내 약 400개 대학에서 TOEFL 대신으로 인정합니다.

* 1일 7시간 3개월 완성 "3차원 EFL 코스"

(4시간 미국인화 + 3시간 TOEFL)

* TOEFL 고득점을 위한 "TOEFL Advanced Course"도 있습니다.

* 등록금: 파고다점원 1년제 시애틀시애틀 1년제 440만원

(주)시사영어사 직영

ELS Chongno

강북 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278)2902/3

91 / 여 / 를 / 방 / 학 / 역 / 사 / 기 / 행

日本속의 韓國文化遺蹟踏査 研修

—文化部 산하 韓國文化財保護協會에서는 지난 '89년부터 4년에 걸친 일본지역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고대 한국문화의 일본영토 전파관문인 先史時代부터 歴史時代, 근세의 朝鮮通信使 倭寇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의 발자취를 답사하여 우리 역사의 우수성을 재조명해볼 것과 동시에 보다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현장교육으로 뜻있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 간: '91. 8. 2(금) ~ 6(목) 4박5일

-인 원: 120명 (신청순 마감)

-지도교수: 鄭永鎬 博士 (문화재연구원)

-참 가 금: 79만 5천원

-특 징: 지도교수의 현장 해설과 특별강연 분야별토론, 일본 현지 역사교육의 장.

-주요 답사지역

● 對馬島 - 朝鮮通信使行列參觀, 고려초조 대장정을 보관하고 있는 對馬歷史資料館, 항일운동가 崔益鎭선생 손자비, 백제시대에 의해 창건된 修善寺와 조선의 명종을 보존하고 있는 圓通寺, 신라총신 朴堤上유적, 대마도 앞바다서 조난당한 조선역관사순남비, 통일신라의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海神神社, 문화재와 사상을 입증해 주는 日本의 고분군 등.

● 九州地域 - 서일본 정치의 중심지 大宰府 政庁址, 나라의 집합의 집합을 차단기 위해 쌓은 水城과 大野山山城, 우리 조상들의 묘로 추정되는 藥山阮南方式支石墓, 일란제 일본에 장려가 일본도자 문화의 시조가 된 李參平遺蹟, 九州歷史資料館, 福岡市立歷史資料館 등.

* 6월15(토)까지 접수

韓國文化財保護協會

(02) 266-6938 · 6940 · 9101

大韓旅行社 해외여행부 (02) 585-1191

운전을 배우시다

23년 전통·성실한 교육

* 특전 *

①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청각 교육

② 택시용 무료 운영

③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④ 외국(이민)출국자 특별환영

⑤ 실습시간 자유선택

⑥ 통학버스 무료 운행

* 면허소지자 시내운전연수

***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매주 월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部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공 앞

(356) 2341~3

北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3

질질 끌며 뉘는 고생하시겠습니까... 일본어, 이제 쉽게 배우십시오 /

NHK 비디오 일본어

일본어, 이제 당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국립국어연구소와 NHK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NHK 비디오 일본어"가 새로 나왔으니요.

이제 다른 교재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당신의 일본어는 "NHK 비디오 일본어"가 책임지고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수월하게 끝내 드리겠습니다./

■ 일본글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 오직 TV나 위시만 누르십시오.

■ 잊을 테니 잊지 않는 방식.

■ 그냥 즐기면 됩니다.

■ 오디오 테이프까지 준비했습니다.

■ 빨리 끝내는 것이 돈 절약하는 길

NHK (02) 777-1557 (02) 755-4166

지금 전화하십시오. 당신의 일본어를 책임지겠습니다.

서울·중구 태평로2가 69-20 (태평리/D 705호)